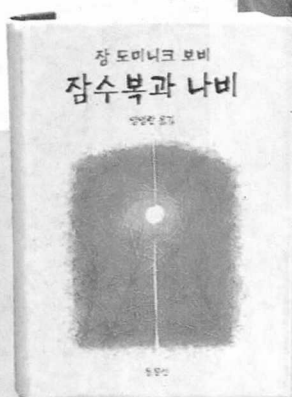


죽음 앞에 선 한 지식인의 육성고백

영화기획자 황윤경씨가 뽑은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복과 나비》



“보비는 전신마비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자기의 삶을 대상화할 줄 알았죠. 그에게서 지식인의 참된 모습을 배웠습니다.”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이라 불리는 영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주무르는 꿈의 무대다. 그 영화판에서 잔뼈가 굵은 영화기획자라면 강력한 문화전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동시대에 대한 사후적 해석보다는 전위적 감수성으로 단련하지 않고는 도태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기획자 황윤경씨(36, 인디컴 프로듀서)에게서 강단 있는 ‘전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 냄새 물씬 나는 누이를 닮았다. 그가 즐겨 읽는 책들에서 이런 면모는 쉽게 드러난다. 그의 서가에는 권정생의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종로서적), 카뮈의 《최초의 인간》(김화영, 열린책들) 등 자서전류의 책이 유난히 많다.

“평소 자서전 읽기를 좋아해요. 자기의 살아온 길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글에는 허구와 상상력이 넘볼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영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영상문법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 영화의 본령 아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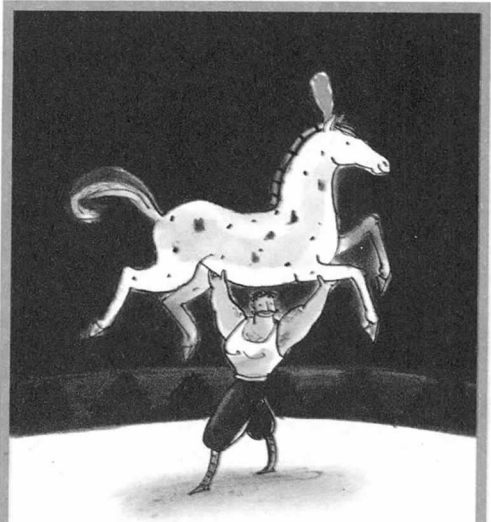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복과 나비》(양영란, 동문선)였다. 그는 지난 1997년 신문에 난 책 소개 기사를 보고 서점으로 달려갔다. 조금씩 천천히 아껴가며 이 책을 읽었다. 죽음 앞에서 허위와 가식을 벗고 정선된 말을 쏟아내는 보비의 육성고백에 눈시울을 붉혔다.

“‘로크인 신드롬’이란 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 보비가 20여만 번 눈꺼풀을 깜박거리려 자신의 삶을 회상한 글이죠. 육체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부자유스럽지만 정신만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펄럭이면서 쓴 글이라 걸치레나 꾸밈이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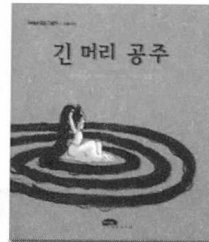
《엘르》지 편집장을 역임한 보비는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 미식이였다. 화려한 생활을 영위한 스타일리스트가 육체에 결박된 약자가 돼 쓴 이 책에는 동료에 대한 회상, 아이들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단상 등이 진솔하게 기록돼 있다. 황씨는 이 책에서 지식인의 참모습을 읽었다.

“보비는 자기가 놓인 상황을 무서울 정도로 객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머의 대상으로 삼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대상화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의 모습이겠죠.”

황씨는 지금까지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해적》 등을 기획했고, 외화《숏컷》 등의 수입, 마케팅을 담당했다. 현재는 국내 최초의 스크린 뮤지컬 《Mr. Lady》를 준비하고 있다. “작고 침착하면서 단단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황씨의 꿈은 이미 ‘크랭크인’ 했다. - 박천홍 기자



서커스의 줄타기, 말을 번쩍 든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궁전 밖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긴 머리 공주

안너마리 반 해링언 글·그림

능동적, 자립적으로 성장해
가는 작고 가난한 나라의
머리 긴 공주의 이야기

2000년 골든펜슬 상 수상

편집자 · 디자이너 모집

아동출판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편집·기획자와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신입·경력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5월 8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주소 : editorial@marubol.co.kr

도서출판 마루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보여 주고 싶은 좋은 창작그림책을
꾸준히 기획·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코페미니즘의 새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참신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의욕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루벌

도서출판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 전화 701-2390 / 팩스 701-2395
http://www.marubol.co.kr